

"세계 한인 여성의 목소리, 동포정책으로 잇는다"

- 김경협 재외동포청장,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(KOWIN) 대회 참석
- 전문직 · 경제 · 차세대 ·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·협력 확대

-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여성들이 재외동포 정책에 더 폭넓게 참여하고,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(KOWIN)와 재외동포 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한다.
-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26일 서울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「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(KOWIN)」에서 세계 각국의 한인 여성들과 만나 이와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.
 - 김 청장은 올해 대회 주제인 「연결된 KOWIN, 함께 만드는 미래」를 언급하며, 지난 20여 년간 세계 각지의 한인 여성들이 국경과 세대를 넘어 교류하며 쌓아 온 성과에 주목했다.
 - 또 공감과 포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인사회와 현지사회의 접점을 넓히고,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유대를 다지는 한편 차세대 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.
- 김 청장은 KOWIN이 구축해 온 연결망을 토대로 재외동포청과의 교류도 한층 넓혀갈 것을 제안했다.
 - KOWIN 회원들은 한인회를 비롯해 전문직 · 경제 · 차세대 ·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. 재외동포청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주요 사업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특히 정부가 사업을 정하고 동포들이 참여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현장의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쌍방향 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.

□ 김 청장은 “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인 여성의 리더십은 대한민국의 외연을 넓히는 소중한 힘”이라며 “KOWIN이 더 많은 차세대 여성 리더를 키우고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” 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	책임자	과장직무대행	황인성 (032-585-3195)
		담당자	서기관	홍민의 (032-585-3200)

